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진원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비	17,250TW/한 학기
파견지역	대만 신베이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9.09.08.~2020.1.11	기타비용	식비,교통비,여행비 등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 1 .20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생소하다고 느꼈던 처음과는 달리, 수업은 거의 중국어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중국어 대화 본문 읽기와 문법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진행한 읽기 듣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본문에 나오는 문법을 배우고 쪽지시험을 보았습니다. 헛갈리거나 어려운 내용은 교수님이 피피티 요점 정리나 칠판에 직접 쓰셔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읽기.수업같은 경우에는 피피티로 중국어 본문을 파악하고 본문에 나오는 어휘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관해 다양하게 익힐 수 있어서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 중국어 수업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나오는 대화나 표현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팀을 짜서 역할극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새해가 다가오는 날에는 그와 관련된 일화나 여러 가지 표현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단어나 문법이외에도 말하기와 쓰기를 주로 강조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중국어 지식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생들에게는 교재 구매대신에, 프린트를 배부해서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양 수업을 들을때는 중국의 고전문학에 관한 수업을 수강했으나, 난이도 때문에 대만의 지리,역사 관련 수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대만의 지리나 역사는 우리가 배우기엔 아직 생소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교재도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수업을 듣다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수업을 하실 때도 내용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맑은날도 있었지만, 거의 비가 자주 왔던 것 같다. 그래서 날씨가 흐린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초순까지는 비교적 더운 편이지만 11월부터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서 반팔을 입고 다니기에는 힘듭니다.

학교 위치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있었다. 학교 안에는 학생식당과 편의점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학생식당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어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저녁 9시면 학교내의 모든 식당과 편의점이 문을 닫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려면 897번 버스나 10번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10번 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역 근처로 갈 수 있어 더 편합니다. 10번 버스는 30-35분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가려면 신디엔역(XIndian MRT district station)이나 치장(Qizhang station),다핑린(Dapinglin station)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갈 때는 신디엔역이나 치장역에서 타는게 더 편합니다. 돌아올 때 사람이 많은 시간대면 돌아올때는 다핑린역에서 내리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단, 배차간격이 꽤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럴땐 7번이나 15번버스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17,250tw	내부구조	4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기숙사 입구에서 들어올때는 지문을 인식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이름과 호실을 써붙여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사항	항상 흰색 기숙사카드 또는 학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기숙사 안으로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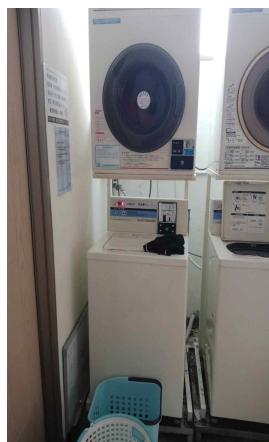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4인실 내부입니다. 침대는 2층침대가 기본이며 아래에는 개인 책상이 있습니다.

개인책상 옆에는 서랍이 있어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발장은 따로 있으나 공동의 신발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합니다. 내가 지냈던 곳은 '타오방' 이라고 안에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기숙사 휴게실 옆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tv가 있어서 tv를 볼수도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와 정수기,싱크대,음식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에는 찬 물이 나오지 않고, 전자레인지 대신에 가열식 냄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세탁실이 존재하지 않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2대씩 복도 양 끝에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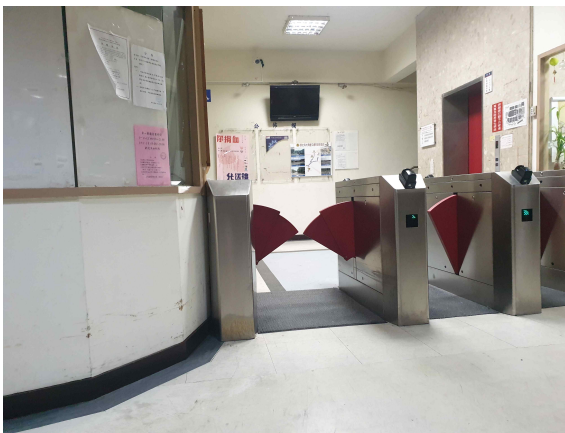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엘리베이터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학생중이나 기숙사카드를 태그해야 합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학생들이 몰릴때가 많아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다. 원래는 홀수층, 짝수층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구분 없이 운행 됩니다.



기숙사 입구다. 기숙사는 총 9층까지 있었습니다. 사진은 내가 학교에 처음 올 때찍었던 사진인데, 이날 기숙사 입구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학생들이 종종 스쿠터를 주차하기도 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지문인식 기계입니다. 처음 개강했을 땐 하지 않았지만 후에 지문 등록을 한 후에 지문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가끔 인식이 안 돼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월요일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입니다. 환경은 쾌적했으며, 점심시간에는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강의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인데, 딱히 제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의 자료실이다. 별도의 스터디룸도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도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인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책은 분류별로 분류를 해 놓아서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다. 책은 한 권당 대출기간이 한 달이다.

왼쪽 사진은 기숙사 앞에 있는 학생 식당에 있는 마라탕 식당입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 부담없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운영하는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도 있어 수업가기 전에 사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음식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먹을 수도 있는 자오파식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h동에 있는 제2식당인데, 이곳에서는 스파게티, 덮밥류 등을 주로 팝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처음 대만에 왔을 때는 낯선나라, 낯선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미 파견을 와 있는 한국 친구들과하는 필요한 일 이외에는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아서 오직 현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 친구들이 중간중간 도와준 덕분에 크게 어렵지 않게 주변 지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한국의 문화나 연예인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할 목적으로만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가본 장소나 유명한 명소에 가 보고 싶었습니다. 대만도 캐릭터 산업이 나를 발달되어 있어서 캐릭터와 관련된 테마전이나 테마카페를 많이 열고 있어서 sns에서 미리 알아보고 찾아보고 구경하곤 했습니다. 여행으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약속을 잡아 지우편과 화편을 여행했습니다. 지우편에 갈때는 비가 와서 힘들었지만, 옛 거리도 걸어보고, 유명한 찻집에도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밤에는 야시장에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먹곤 했습니다. 화편에 갈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지 피곤했지만, 가고 싶었던 명소와 넓은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 밖에도 단수이구에서 구경한 바다와 항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업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특별활동 프로그램에는 몇 번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카드 만들기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스텔로 크리스마스카드 이외에도 나만의 카드를 만들 수도 있어서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어서 신청한 활동이었지만, 학교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반 학기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모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는게 어려웠지만, 계속 지내다보니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새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배워야 할 것이 많기에, 이번 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학생들도 통학할 때 스쿠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타보고 싶었지만 친구가 위험하다고 해서 못 타본건 아쉽기까지 했습니다.